

지 상 중 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8>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일시 : 불기 2549년 6월 19일
- 강사 : 최혜경 교수(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
- 주제 :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자녀는 어제의 나
부모는 내일의 나

희생과 보은 조화가 행복 열쇠

📹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자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지던 사회.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구시대 윤리의 무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50대가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의 윤리를 기대하는 '노부모', 그리고 이전의 윤리를 등지고 서 있는 '자녀'를 동시에 끌고 가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이 갑갑한' 이들에게 갑로수와 같은 조언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19일, 안성 도피안사와 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구국구세 대법회' 여덟번째 자리에서 최혜경 교수(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되짚어 봐야 할 사안들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문화를 대비하자

노년기 삶을 사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개념은 '노년기 삶의 의미'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의 견해를 소개했다. 융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자녀들을 혼인시켜 떠나보낸 이후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찾지 못했기에, 자녀들의 혼사를 치른 이후에는 다시 '젊었을 당시의 삶'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그러나 동양의 경우 노인 중심의 삶과 문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 젊은 중심의 문화로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삶과 문화를 가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여기'의 한국사회의 노년기 삶과 문화는 어떠할까. 현재 70-80대의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중·장년기를 '자식을 위한 가정의 삶'에 희생했다. 이후 물질적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워진 노년기에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자' 하는 바람은 여전히 있다. 해바라기처럼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현재 70-80대 노인들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지금 노년을 준비하는 50대는 그 같은 전환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자녀를 예전처럼 많이 낳지 않아 자식이 품을 떠난 이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신의 시간을 운용하는 기회도 늘었다.

최 교수는 이를 '신노년문화'라 지칭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숙고와 대비가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줄일 수

다'고 말했다.

■ 부모 중심 사고 먼저 버려야

시대의 변화도 인정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도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과거 윤리에 젖어온 이들이 그간의 습을 버리고 급세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 교수는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했다.

"시아버님이 시력을 잃으셔서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식들의 고민과 불편함은 말로 다 못하죠. 마음 언저리에 항상 응어리가 진 듯 부모병기가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픈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효 관념에 쫓은 부모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자식들에게 매일 같이 전화하며 자식들 걱정을 놓지 않는데, 정작 자녀들은 이들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 교수는 '용함'으로 표현되는 이들 부모-자식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식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는 생각과 태도에서 갈등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는 '내 생각은 옳고 자녀들은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평가받기가 어렵다. 이는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의 목표 등을 전가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나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가족 중심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 원만해진다. 사진은 서울 종로공원에서 소일하는 노인들.

사진=고영배 기자

분리시키고 개별 삶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가족 중심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교적 윤리의 영향에 따라 가족의 개념이 중시돼 왔다. 세계의 중심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보다는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관계가 강조됐고, 당연히 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모만을 위한 자녀, 장남을 위한 동생의 개념은 오히려 지금 여기의 가족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 움직이는 노년이 행복하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정이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힘들게 할지라도, 노인들의 노년기 행복감의 척도는 여전히 자식의 행복이었다.

최 교수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쩌면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무조건적 감정'일지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최 교수가 강조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다.

"자식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장만 해주려고 회사일에만 매진하는 가정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자식들에게 은연중에 주입되게 되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아내와의 관계죠. 은퇴 후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 교수는 노년기 교육 기회의 확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활동 역시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이때 사활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범죄 활동과 경전 불독 등의 지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명상을 지속할 경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 템플스테이 등을 포함한 여행, 찬불가 배우기 등 평소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역시 노년의 삶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한다.

■ 질의 응답

-30~40대가 '폭포수'에 비유된다면, 50~60대는 '바다'로 흐르는 강물', 이 이상은 '바다'로 개념 지을 수 있다. 폭포수는 지식은 넘치나 지혜가 부족한 탓에 자식을 양육할 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다. 고기는 바다에서 양육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바다에 비유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데 왜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것일까?

▲현재 60~70대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한 이용하지도 못하는 듯하다. 그들이 역할자로서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에 따른 행동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노인들의 멘토링(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삶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에서 세대간의 종교 문제도 갈등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종교 문제로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명확하게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제되는 사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한 가톨릭 신자가 제사를 미풍양속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등이 그 예다.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타협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신재 기자 thswhy@buddhapia.com



■ 최혜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가족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성인 및 노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노년학회 이사·대안 가정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망학> <노인과 실버산업> 등의 저서가 있다.

다음 주제: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강사 최홍동 · 7월 3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임원 공고

- 승정원 원장 지철
- 중의회 의장 무송
- 호법원 원장 대원
- 교육원 원장 구진
- 연수원 원장 도명
-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 총무 부장 일두
- 교육 부장 무초
- 문화 부장 도심
- 연수 부장 법연
- 비구니 부장 혜광
- 문화 국장 시행
- 연수 국장 지우
- 의전 국장 원명

● 포교사단

- 서울포교국장 보현
- 부산포교국장 혜현
- 대구포교국장 혜원
- 포교단특별자문위원
- 청암스님 성안스님
- 광운스님 법정스님
- 청강스님 해월스님

● 각시 도 총무원 원장

- 경기총무원 원장 법화
- 경북총무원 원장 태룡
- 충남총무원 원장 수암
- 경남총무원 원장 원타
- 대구총무원 원장 성진
- 대전총무원 원장 혜각
- 사서실국장 성부
- 수행 특보 성덕 성혜

■ 서울총무원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02)391-8583

한국생활불교조계종
경남법사단총무원

법사승려총무원 원장 도해 대법사

- 총무원, 총국장 혜명 법사
- 총무 1국 청송 법사
- 총무 2국 혜연 법사
- 수진 법사

- 부산지부총무소
지국장 혜성 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총무소
지국장 성각 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총무소
지국장 덕경 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 법사, 법정 법사, 혜경 법사
목암 법사, 개안 법사, 자은 법사
혜정 법사, 덕운 법사, 성수 법사

※ 법사 및 부처님 신봉제자 입증바랍니다

■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중성동 20-35(2층)
대표전화 055)241-0253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건강한하루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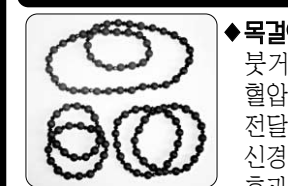
배개용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기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놓으면 놓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놓이는 쉰쉰하게 살아납니다. 고구란 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입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이 사용 후 기억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덕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희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